

# 일상 언어의 은유와 환유

박재연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시작하는 말

은유(metaphor)와 환유(metonymy)는 국어 시간에 문학 작품을 배울 때 ‘직유법, 설의법, 풍유법, 과장법, 반복법’ 등과 함께 수사법의 일종으로 배웠던 개념이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1) 가. 달,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윤석중, <달>)  
나. 가을 지난 마당은 하이얀 종이 / 참새들이 글씨를 공부하지요(윤동주, <참새>)
- (2) 가. 아내는 신이 나서 도마질을 할 것이다.(피천득, <나의 사랑하는 생활>)  
나. 펜은 칼보다 강하다.

(1가)에 쓰인 수사법은 직유법이다. 달과 쟁반은 둥글다는 유사점이 있는데 이를 ‘~ 같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1나)에서 “가을 지난 마당은 하이얀 종이”에 쓰인 수사법은 은유법이다. 이 역시 ‘가을 지난 마당’과 ‘하이얀 종이’가 무엇인가를 쓸 수 있는 너른 공간이라는 유사점에 착안한 것이다. ‘~ 같이’나 ‘~ 처럼’이 쓰이지 않고 ‘마당’과 ‘종이’를 “A는 B이다”와 같은 형식으로 직접 연결시켰기 때문에 이는 은유법이다. 직유법과

은유법은 모두 두 대상의 유사점을 바탕으로 어느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공통점이 있다.

(2가)에서 ‘도마질을 하다’는 ‘요리를 하다’의 의미이다. ‘도마질’은 ‘요리하는’ 행위의 일부인데 ‘도마질’만으로 요리하는 행위 전체를 가리킨다.<sup>1</sup> (2나)에서 ‘펜’은 ‘글’을 가리키고 ‘칼’은 ‘무력’을 가리키는데 역시 환유법의 예이다. 환유법은 어떤 대상을 그와 연관이 있는 다른 대상으로 지시하는 수사법이다.

수사법이라는 것은 말을 꾸미는 기법이므로 수사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말이나 글에 장식물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장식물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생활에서 은유나 환유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로 오랫동안 은유나 환유는 문학적인 표현에서 찾을 수 있는 특별한 언어 사용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은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불러온 대표적인 저서인 레이코프·존슨(Lakoff·Johnson)의 《삶으로서의 은유》(1980)가 발간된 이후, 언어학자들은 은유와 환유가 문학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상 언어에도 이미 널리 자리 잡고 있는 보편적인 것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나아가 은유와 환유는 단지 언어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사물이나 사태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핵심적인 인지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알게 모르게 일상 언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은유적 과정과 환유적 과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

<sup>1</sup> 이는 흔히 제유법으로 다루어졌다. 국어 교육에서 ‘환유법, 제유법, 대유법’은 그 범위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채 사용되는 일이 많은데 언어학 논의에서는 이들을 모두 환유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 2. 우리 안의 은유와 환유

은유는 어떤 대상을 유사성(similarity)을 가지는 다른 대상을 통해 이해하는 방법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예전에는 은유를 단순히 문학적 수사법, 즉 효과적인 표현을 위한 언어의 장식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은유가 장식물에 불과하다면 모든 은유적 표현을 문자적 표현(문자 그대로의 표현, literal expression)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바꿀 수 있는 표현들도 물론 있다. “너는 내 인생의 빛나는 별이야.”는 “너는 내게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야.”라는 뜻이고 “공무원은 철밥통이다.”는 “공무원은 실직의 위험이 없는 매우 안정적인 직업이다.”로 바꿀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 표현은 어떠한가?

- (3) 가. 게임을 하다 보니 시간이 후딱 지나갔다.  
 나. 곧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다. 어느새 겨울이 가까워졌다.

우리는 여기에 특별한 문학적 수사법이 사용되었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도 은유가 숨어 있다. 시간이 구체적인 실체가 있어서 창밖을 지나가는 행인처럼 우리 곁을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추석 연휴가 우리를 향해 걸어오거나, 뛰어오는가? 겨울이라는 계절이 마치 자동차가 우리에게 가까워지듯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가? 시간, 연휴, 계절 등이 공간적 이동이 가능한 실체로 생각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시간은 구체적인 사물’이라는 은유적 사고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을 문자적 표현으로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시간이 지나갔다.’ 대신 ‘시간이 흘러갔다.’를 쓰려고 하면, ‘시간이 흘러갔다.’ 역시 시간을 물과 같은 것으로 보고 마치 냇물이 흘러가듯 시간이 공간을 이동할 수 있게

표현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시간이 흘러가다’에도 ‘시간은 물’이라는 은유가 숨어 있는 것이다.

시간 개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공간 개념에 의지하여 표현한다. 시간이라는 것은 공간 개념에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 머릿속에 이러저러한 것으로 개념화시키기조차 어려운 것이다.

(4) 가. 문제를 정해진 시간 안에 다 풀어야 돼.

나. I saw her in the morning.

다. 一个小时内就到(한 시간 내로 도착한다.)

한국어의 ‘안’이든 영어의 ‘in’이든 중국어의 ‘内’이든, 모두 본래는 공간적인 개념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시간 개념에도 쓰인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시간을 안과 밖이 있는 그릇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은유가 보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은유는 우리의 생각이나 의미 구성 과정에서 매우 근본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시간을 구체적 실체로 생각하기도 하고 안과 밖이 있는 그릇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마치 돈이나 재산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5) 가. 컴퓨터를 고치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했다.

나. 식기세척기와 건조기가 시간을 많이 절약해 주세요.

다. 아무리 지금이 방학이라도 시간은 아껴 써야지.

라.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예를 보면 우리는 마치 돈을 낭비하고 절약하고 아껴 쓰고 누군가에게 내어 줄 수 있는 것처럼, 시간 역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특별한 수사법이 쓰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무심히 사용한다. ‘시간은 돈’의 은유가 우리에게 완전히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도 알게 모르게 은유적 표현들을 많이 사용한다. ‘감정은 물’이라는 은유 역시 매우 일반적이다[임지룡(2006): 38 등 참조].

(6) 가. 너무나 억울해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나. 첫눈에 사랑에 빠져 버렸다.

다. 우울한 감정에서 헤어 나오기 어려웠다.

(6가)에서는 분노의 감정이 냄비 속에서 끓고 있는 물처럼 표현되고 있다. (6나)에서 사랑의 감정 역시 마치 호수처럼 인간이 빠질 수 있는 물 같은 것에 비유된다. (6다)에서도 우울의 감정은 ‘헤어 나오기 어려운’ 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레이코프·존슨(1980)은 은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두 가지 통찰을 제시한다.

(7) 가. 은유는 문학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상 언어에도 널리 퍼져 있다.

나. 은유는 단순히 언어를 아름답게 꾸미는 수사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층위에서, 즉 인간의 사고 과정 자체에서 작동한다.

레이코프·존슨(1980)은 우리의 일상 언어와 사고 과정 전체에 넓고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은유를 문학적 은유와 구별하기 위해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라고 불렀다.

은유적 과정은 우리의 사고에서 일반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상이 생겨날 때 은유에 의한 명명이 이루어지는 것도 매우 흔하다.

(8) 가. 마우스, 골뱅이

나. 바이러스, 치료, 백신

쥐를 닮은 컴퓨터 부속품을 ‘마우스’라고 부르는 것은 모양의 유사성에 입각한 은유이다. 전자 우편 주소에 사용하는 ‘at’ 표시인 ‘@’를 ‘골뱅이’라고 부르는 것도 모양의 유사성에 입각한 은유적 명명이다. 또한 우리는 컴퓨터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망가뜨리는 프로그램을 인체에 침투한 ‘바이러스’에 비유하여 표현한다. 이에 따라 그것을 제거하는 것을 ‘치료’한다고 말하고 그것이 작동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백신’이라고 말한다. 컴퓨터 바이러스의 개념은 이러한 은유 없이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바이러스의 은유를 통해 우리는 그와 관련된 개념들을 보다 친숙하게 받아들인다.

다음으로 일상 언어 속에 숨어 있는 환유 표현에 대해 생각해 보자. 레이코프·존슨(1980)에서는 은유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고 환유에 대해서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후 학자들은 환유적 과정이 은유적 과정보다도 더욱 빈번히 일어나고 나아가 더욱 근본적인 인지적 과정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바르셀로나(Barcelona) 2000].

환유는 어떤 사물을 그와 가까운 인접한 사물로 지시하는 것이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에서 ‘펜’과 ‘칼’, ‘칼’과 ‘무력’은 각각 인접한 대상들이다. 즉 환유가 발생하는 중심적 기반은 두 대상의 인접성(contiguity)이다. 이는 은유가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과 대조된다.

인접성이 존재하는 양상에 따라 환유는 더욱 세밀하게 분류될 수 있지만, 대략 ‘부분으로 전체를 지시하는 환유’와 ‘전체로 부분을 지시하는 환유’, ‘어떤 대상을 위치적으로 인접한 것으로 지시하는 환유’ 등 세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sup>2</sup>

(9) 가.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나. 어느덧 시계는 새벽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다. 청와대는 아직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sup>2</sup> 환유를 분류하는 좀 더 세밀한 방법에 대해서는 박재연(2014나) 참조.

(9가)에서 ‘빵’은 ‘음식’을 뜻한다. 음식의 일부로 음식 전체를 지시한다는 점에서 부분으로 전체를 지시하는 환유에 속한다. (9나)에서 ‘시계’는 정확히는 ‘시곱바늘’을 가리킨다. 어떤 대상의 전체로 그 일부분을 가리키는 환유에 속한다. (9다)에서 ‘청와대’는 정확히는 ‘청와대에 사는 대통령 및 그 측근’을 말한다. 어떤 대상을 위치적으로 인접한 것으로 지시하는 환유에 속한다.

우리 생각 속에 완전히 내면화되어 어떤 수사법이 사용되었다고 느껴지지 않는 문장 속에서도 환유적 표현을 적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 (10) 가. 난로 위에서 주전자가 끓고 있다.  
 나. 도시락 먹고 하자.  
 다. 내가 집에서 화분을 열 개나 키우고 있거든.
- (11) 가. 우리 애는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한 시간도 안 돼요.  
 나. 안전모 안 쓴 오토바이는 위험해요.  
 다. 오늘 버스 파업해?

(10가)의 정확한 표현은 ‘난로 위에서 주전자 속의 물이 끓고 있다.’이며 (10나)의 정확한 표현은 ‘도시락 속의 음식을 먹고 하자.’이다. 또한 ‘화분(花盆)’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화분에 식물을 키우는 것인데도 우리는 (10다)와 같은 표현을 매우 자주 사용한다.<sup>3</sup> (11가)에서 ‘책상’은 정확히는 ‘책상 앞(의 의자)’이다. (11나)는 어느 경찰서에서 내건 표어인데 오토바이가 안전모를 쓰는 것은 아니기에 더 정확한 표현은 ‘안전모를 안 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위험해요.’일 것이다. (11다)에서도 실제 파업은 버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 기사가 하는 것이나 이러한 표현이 흔히 사용된다.

이들은 모두 부정확한 표현이고 엄밀히 말하면 언어의 잘못된 사용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문장을 말하고 들으면서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

<sup>3</sup> 용기로서 내용물을 지시하는 환유는 매우 일반적이며 흔히 체계적 다의성(systematic polysemy)과 함께 다루어진다. 체계적 다의성에 대해서는 차준경(2009) 참조.

한다. 어떤 대상을 인접한 것으로 지시하는 환유적 사고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언어를 그렇게 명료하고 정확하게 사용하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은 ‘빨래’와 같은 기초 단어가 의외로 여러 의미에 걸쳐 모호하게 사용된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12) 가. 집안일 중에 빨래가 제일 쉽다.

나. 이를 동안 집을 비웠더니 빨래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

다. 가을 햇살에 바짝 마른 빨래를 걸어 들어온다.

이러한 예를 보면 ‘빨래’는 적어도 세 가지 지시 대상을 가리킨다. (12가)의 ‘빨래’는 옷을 빠는 행위이고 (12나)의 ‘빨래’는 빨아야 하는 더러운 옷이며 (12다)의 ‘빨래’는 빨고 난 깨끗한 옷이다.<sup>4</sup> 이는 모두 별개의 대상이고 심지어 의미적으로 상반되는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래’라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sup>5</sup>

실제로 은유적 사고와 환유적 사고는 우리 생활에서 매우 흔히 발견된다. 어떤 모임에 가서 처음 보는 사람이 무언가를 발표하는 것을 보았다고 해 보자.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를 때 우리는 그가 검은 목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발표한 것에서 ‘애플’ 창립자 ‘스티브 잡스’를 떠올리며 “아까 그 스티브 잡스 있잖아.”라고 말할 수 있다. 아니면 “아까 그 검정 목 티 있잖아.” 하고 그를 ‘검정 목 티’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스티브 잡스’라는 임시 별명은 은유적 사고의 결과이다. 알려진 대상 중 그 대상과 비슷한 것의 이름으로 불렀기 때문이다. ‘검정 목 티’라고 불렀다면 이는 환유적 사고의 결과이다. 그 사람과 가

4 이러한 의미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빨래’ 항목 뜻풀이에 다음과 같이 반영되어 있다.

「1」 더러운 옷이나 피륙 따위를 물에 빠는 일.

「2」 더러운 옷이나 피륙 따위. 또는 빨아진 옷이나 피륙 따위.

5 이와 비슷한 ‘설거지’는 “설거지가 싫다, 설거지가 많다.”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설거지 행위와 설거지해야 할 그릇을 가리킬 수는 있으나 설거지한 깨끗한 그릇들을 가리키지는 못한다(“\*건조대에서 설거지를 말렸다.”).



끼이 존재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가리켰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누리 소통망(SNS) 같은 매체가 등장했을 때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함께 접속하거나 혹은 접속을 끊는 행위에 대해 우리는 ‘카톡방을 만든다, 단톡방(단체 카톡방)에 들어간다, 카톡방을 나간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구체적인 형태의 방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어떤 공간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러한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러한 매체에 접속하는 일 자체를 방에 드나드는 것과 같은 공간 개념에 의지하여 은유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이코프·존슨[(1980): 37]에서는 초상화를 그리는 전통은 얼굴만으로 하나의 사람을 대표시키는 것으로서 결국은 환유적 인지 과정에 입각한 것이라고 하였다. 서양인들은 인사를 할 때 모자를 벗는데 모자를 벗는 과정을 생략하고 모자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인사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모자에 손을 대는 행위는 모자를 벗는 행위의 환유이다[박재연(2013): 275, 각주 35]. 영화나 연극에서 등장인물의 죽음을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으로 대신 표현했다면 이는 죽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강물에 그려지는 파장이나 구급차 소리 혹은 영정 사진으로 표현했다면 이는 죽음을 환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3. 어휘 의미 확장에서의 은유와 환유

어떤 대상에서 비슷한 것을 떠올리는 은유적 사고와 인접한 것으로 대상을 지시하는 환유적 사고는 우리의 언어와 사고에 매우 광범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언어 변화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 장에서는 명사나 동사 혹은 관용 표현 등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어휘적 요소들의 의미 변화에서 은유와 환유가 작동하는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의미 변화가 일어날 때는 대부분 다의 확장(의미 확장, semantic extension)이 발생한다. 다의어의 의미 항목(senses)은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로 나눌 수 있는데, 가령 동사 ‘먹다’의 중심적 의미는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다.’이다. 원래 ‘먹다’는 이러한 의미만을 가졌을 것이나 의미가 확장되어 ‘나이를 먹다, 욕을 먹다, 돈을 먹다’ 등에도 쓰이게 되었다. ‘밥을 먹다’의 ‘먹다’가 중심적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나이를 먹다, 욕을 먹다, 돈을 먹다’의 ‘먹다’는 주변적 의미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심적 의미에서 주변적 의미로 의미가 확장되는 과정을 거쳐 의미의 변화가 발생하며 어떤 경우에는 중심적 의미가 아예 잊혀서 주변적 의미였던 것이 중심적 의미를 차지하기도 한다.

의미 확장 과정을 들여다보면 은유적 의미 확장과 환유적 의미 확장의 예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명사에서 발생한 의미 확장의 두 종류를 비교해 보자.

- (13) 가. 길  
 나. 책갈피

‘길’도 다의어이고 ‘책갈피’도 다의어이다. ‘길’은 본래 ‘도로’를 의미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의미 항목을 가진다. 가령 ‘학자의 길, 성직자의 길’ 등에서는 ‘어떤 자격이나 신분으로서 주어진 도리나 임무’의 의미로 쓰인다. (13나)의 ‘책갈피’는 본래 책장과 책장 사이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읽던 곳이나 필요한 곳을 찾기 쉽도록 책의 낱장 사이에 끼워 두는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의 의미도 등재되어 있다. “책갈피에 몰래 돈을 끼워 두었다.”에서는 본래의 의미로 쓰인 것이고 “예쁜 책갈피를 선물받았다.”에서는 확장된 의미로 쓰인 것이다.

이때 ‘길’의 다의성은 은유적 확장에 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도로와, 도리나 임무의 추상적인 의미는 ‘따라가야 하는 죽 이어진 것’이라는 유사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의미 확장이



에 띄는 어떤 것'이라는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환유적 변화의 예는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지치다'는 본래 '설사하다'의 의미였다. 설사를 하면 대개 몸이 피로해지므로 인접 의미로 의미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힘'은 본래 '근육'의 의미였는데 근육에서 힘이 나오므로 힘(力)의 의미로도 쓰이다가 지금은 근육의 의미는 사라지고 힘(力)의 의미로만 쓰이게 되었다[남성우(1990): 33 참조].<sup>7</sup> 모두 환유적 의미 변화의 예이다.

은유적 확장, 환유적 확장으로 인해 다의어로 존재하는 경우는 훨씬 더 많다. 먼저 은유적 확장으로 다의어가 된 예를 보자.

- (15) 가. 내 방 벽에는 박수근 그림 복사판이 걸려 있다.  
나.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기고 있다.
- (16) 가. 창문 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온다.  
나. 요즘 영화를 볼 틈이 없네.
- (17) 햇살이 밝다, 표정이 밝다, 사리에 밝다

(15가)의 '벽'은 구체적인 사물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15나)에서처럼 인간 관계에서의 거리감과 같은 추상적인 대상에도 확장되어 사용된다. (16가)의 '틈' 역시 원래는 물리적인 공간을 나타내지만 (16나)에서는 시간 개념에도 쓰인다. (17)의 '밝다' 역시 본래는 물리적인 밝음을 의미했지만 '표정이 밝다, 사리에 밝다'에서는 확장된 의미로 사용된다.

다음은 환유적 의미 확장에 의한 다의어의 예이다.

- (18) 가. 아침에 만나자.  
나. 아침 먹으러 갈래?
- (19) 가. 고사장 경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 건물 경비에게 문의했다.

<sup>7</sup> '힘줄, 등심, 안심' 등에 근육의 의미를 가지는 '힘(혹은 그 구개음화된 형태인 '심')'의 흔적이 남아 있다.

- (20) 가. 코가 오뚝하고 아주 예쁘구나.  
 나. 비염 때문에 하루 종일 코가 나와요.

(18가)의 ‘아침’은 시간적 개념인데 (18나)에서는 ‘아침에 끼니로 먹는 음식’의 의미로 쓰인다. ‘경비’는 원래 (19가)에서처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키는 일’을 가리키지만 (19나)와 같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코’는 (20나)에서처럼 ‘콧물’의 의미로도 쓰인다.

관용 표현 중에도 은유에 의한 것과 환유에 의한 것을 구별할 수 있다. 관용 표현이란 둘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형식이 구성 성분의 합이 아닌 다른 의미로 전용되어 쓰이는 것을 말한다.

- (21) 가. 자꾸 비행기 태우지 마.  
 나. 어제 여자 친구한테 바람을 맞았다.  
 다. 나 지금 뚜껑 열리기 일보 직전이야.

‘비행기 태우다’는 문자적 의미와 전혀 다르게 ‘과장되게 칭찬하다’의 의미로 쓰인다. ‘바람 맞다’는 만날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쓰인다. ‘뚜껑 열리다’는 화가 많이 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비행기를 태우거나, 바람을 맞거나, 뚜껑이 열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행위와 유사성이 있다고 보고 이러한 관용 표현이 사용된다. 이들은 은유적 관용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22) 가. 오늘 드디어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나. 고모가 면사포를 쓰던 날 할머니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셨다.  
 다. 우리 애가 아무래도 엄마 지갑에 손을 대는 것 같아.

‘사인을 하다’는 ‘계약을 하다’의 의미이고 ‘면사포를 쓰다’는 ‘결혼을 하다’의 의미이다. ‘손을 대다’는 ‘~에서 물건을 훔치다’의 의미로 쓰인다. 이들 모두 전체 행위를 그 일부분으로 표시하는 환유적 표현에 속한다.

은유와 환유에 의한 의미 변화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먼저 은유적 확장으로 새로운 용법을 얻게 된 예를 보자. 다음에서 ‘족보, 껌딱지, 폭탄, 고구마, 사이다’의 비유적 의미는 아직 사전에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꽤 폭넓게 사용된다.

(23) 가. 족보만 구하면 이 과목 시험은 문제없어.

나. 애가 엄마 껌딱지라서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sup>8</sup>

다. 개가 우리 팀 폭탄이잖아.

라. 아까 들은 애긴 고구마더니 이진 참 사이다네.

청소년들의 언어에서 ‘족보’는 시험의 기출 문제 묶음을 말한다. ‘껌딱지’는 어떤 사람에게 껌처럼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 ‘폭탄’은 어떤 집단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말한다. ‘고구마’는 ‘답답한 일’을 뜻하고 반대로 ‘사이다’는 ‘속 시원한 일’을 뜻한다. 고구마를 먹었을 때 목이 막히는 느낌이 들기 쉬운 것과 답답한 감정의 유사성에 기반한 용법이다. ‘사이다’ 역시 사이다를 마시면 탄산으로 인해 시원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용법을 가지게 되었다.

다음은 진행 중인 환유적 확장의 예이다.

(24) 가. 선수들은 벤치의 지시를 기다렸다.

나. 너 아직 급식인 주제에 지금 뭐하는 거야?

다. 이번에 계절 뭐 들어?

---

<sup>8</sup> ‘껌딱지’의 이러한 용법은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 실려 있다.



#### 4. 문법 의미 확장에서의 은유와 환유

원래 은유와 환유는 주로 어휘적인 요소에 대해 논의되어 왔으나 문법적 의미를 가지는 요소들의 의미 변화에서 은유와 환유가 작동한다는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먼저 영어 양태 조동사(modal verb)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자.

- (26) 가. You may come in.  
나. You may be a student.

(26가)의 may는 ‘허가’의 의미이고 (26나)의 may는 ‘추측’을 나타낸다. ‘허가’와 ‘추측’은 어떤 관련이 있길래 ‘may’가 이러한 다의성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 스위트처[Sweetser(1990)]에서는 ‘허가’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물리적 장벽이 없는 것을 나타내고 ‘추측’은 추론 과정에 있어서 장벽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보고 둘 사이의 관계를 은유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문법 형식의 의미 변화는 함축의 관습화(conventionalization of implicature)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since’는 본래 ‘~한 이래로’의 의미로 쓰였는데 ‘~하기 때문에’의 의미로 해석될 때도 있다. ‘시간’에서 ‘원인’의 의미로 확장된 예이다. 어떤 사건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것은 그 사건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since’가 원인 의미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인접한 의미로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환유적 확장에 속한다[트라우갣·코니히(Traugott & König) 1991: 3장].

박재연(2013, 2014가)에서는 한국어 어미의 의미 확장에서 나타나는 은유적 확장과 환유적 확장을 구별하였다. 가령 ‘-지만’의 다의성은 은유적 확장의 결과이지만 ‘-어서’의 확장은 환유적 확장의 결과이다. 먼저 ‘-지만’의 예를 보자.



(27) 가. 영희는 공부는 잘하지만 성격은 그다지 좋지 않다.

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 동네가 물가가 비싸다.

(27가)의 ‘-지만’은 ‘대립’의 의미를 가진다. 반면 (27나)의 ‘-지만’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두 명제가 내용적으로 대립되지 않기 때문에 ‘대립’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때의 ‘-지만’의 의미가 ‘대립’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박재연[(2014가): 543]에서는 이때의 ‘-지만’은 ‘대립’의 ‘-지만’이 화행 영역으로 은유적으로 확장한 결과라고 보았다. (27나)에서 ‘다 아는 사실’은 ‘이 동네가 물가가 비싸다’라는 후행절 명제를 가리키는데 그것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면 화자가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은 필요한 양의 정보만을 제공하라는 그라이스(P. Grice)의 양의 격률(Maxim of Quantity)을 위배하는 발화가 된다. 이때 ‘-지만’은 다 아는 사실이어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후행절 발화에 대해 대립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어서’의 의미 확장은 이와는 성격이 다르다.

(28) 가. 어제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었다.

나. 출근길에 갑자기 비가 와서 우산을 샀어요.

‘-어서’는 선행절 사태가 후행절 사태보다 먼저 발생했음을 의미하는 ‘선행’의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28나)에서는 선행절 사태가 후행절 사태의 ‘원인’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에서 말했듯이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형식이 논리적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형식으로 발전하는 것은 여러 언어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함축의 관습화 과정이다. 따라서 이때 작용하는 원리는 환유이다.

문법 형식의 의미가 인접한 의미로 변화하는 것은 매우 흔하다. 가령 “이

상품은 오천만 원까지 보장되시는 상품이세요.”와 같은, ‘-시-’가 사용된 비규범적인 예에서 ‘-시-’는 주체 높임이 아닌 청자 높임의 의미로 쓰이는데 ‘-시-’의 주체 높임 의미가 인접한 청자 높임으로 확장되어 발생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박재연[(2013): 274]에서는 “고객님, 이쪽으로 오실게요.”와 같은 ‘-을게’의 비규범적인 용법도 ‘-을게’의 환유적 확장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1인칭 주어의 약속이나 의도를 나타내던 ‘-을게’가 2인칭 주어의 행위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의미 확장을 겪는데 이 역시 인접한 의미로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환유적이다.

## 5. 맺음말

은유와 환유는 20세기 들어 언어학뿐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그 중요성이 새삼 주목되었다. 20세기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은 현대 사회를 ‘액체 근대(Liquid Modernity)’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규정하였고 학문에서 은유의 역할을 중시하였다.<sup>9</sup> 미시사회학의 창시자이며, 언어학자들에게는 체면(face) 개념의 창시자로 유명한 어빙 고프먼(Erving Goffman) 역시 《자아 연출의 사회학》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 작용을 무대 연기의 은유를 기반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한편 소설가이자 비평가, 수필가였던 수전 손태그(Susan Sontag)는 《은유로서의 질병》에서 질병에 대한 은유가 우리에게 가하는 불필요한 고통을 분석하였다.

<sup>9</sup> “고대인들은 은유가 단순히 연설의 장식품으로 사용된다고 믿었습니다. (중략) 하지만 이것이 은유의 모든 기능은 아닙니다. 또 은유가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임무도 아니죠. 우리가 낯선 경험과 마주했을 때 그것을 포착하고 탐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개념의 연결망이 필요합니다. 이때 은유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상상력과 이해력을 제공하는 것이죠. 은유는 상상력을 위한 필수적 발판이자, 아마도 무언가를 이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일 것입니다.”[바우만 외 지음, 노명우 옮김(2015), 147~148쪽]에서 바우만은 은유에 대해 가진 견해를 엿볼 수 있다. 그는 ‘사회(society)’라는 말부터가 ‘일행(company)’의 의미로서 일종의 은유로 사회과학 담론에 도입된 것임을 지적한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은유적 혹은 환유적 사고가 우리의 생각과 느낌에서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현대 사회에서 은유적 혹은 환유적 신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인간의 상상력과 창조성이 강조되는 현대 사회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예술 작품 속의 은유와 환유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사용하는 도구이지만 사실 우리의 정신은 일상에서부터 이미 은유와 환유에 지배되고 있다. 은유적 사고와 환유적 사고에 관심을 가져 본다면 우리의 세계 인식 방법을 좀 더 넓고 깊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남성우(1990), “국어의 어휘 변화”, 《국어생활》 22, 국립국어원, 20~41쪽.
- 박재연(2013), “한국어 의도 관련 어미의 환유적 의미 확장”, 《국어학》 68, 국어학회, 253~288쪽.
- 박재연(2014가), “한국어 연결어미 의미 확장에서의 환유와 은유”, 《국어학》 70, 국어학회, 117~155쪽.
- 박재연(2014나), “한국어 환유 표현의 체계적 분류 방법”, 《한국어 의미학》 45, 한국어 의미학회, 1~30쪽.
- 수전 손태그 지음, 이재원 옮김(2002), 《은유로서의 질병》, 이후.
- 어빙 고프먼 지음, 진수미 옮김(2016), 《자아 연출의 사회학》, 현암사.
- 임지룡(1995), “환유의 인지적 의미특성”, 《국어교육연구》 27, 국어교육 연구회, 223~254쪽.
- 임지룡(2006), “개념적 은유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20, 한국어 의미학회, 29~60쪽.
- 지그문트 바우만 외 지음, 노명우 옮김(2015), 《사회학의 쓸모》, 서해문집.
- 차준경(2009), 《국어 명사의 다의 현상 연구》, 제이앤씨.
- Barcelona, A.(2000), On the Plausibility of Claiming a Metonymic Motivation for Conceptual Metaphor, in Barcelona *ed.*(2000), “Metaphor and Metonymy at the Crossroads: A Cognitive Perspective”, Mouton de Gruyter, 31~58쪽.
- Lakoff, G. & M. Johnson(1980), 《*Metaphors We Live b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weetser, E.(1990),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Metaphorical and Cultural Aspects of Semantic Struc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augott, E. C. & E. König(1991), Semantics–pragmatics of Grammaticalization Revisited, in Traugott & Heine *eds.*(1991),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volume 1: Focus on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89~218쪽.